

**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**  
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5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7. 2.

발 의 자 : 남인순 · 홍성국 · 장혜영  
이탄희 · 양이원영 · 박홍근  
진선미 · 최혜영 · 조오섭  
이수진<sup>배</sup> · 윤미향 · 김영배  
주철현 · 황운하 · 고영인  
김승원 · 권칠승 · 김상희  
홍영표 · 박영순 · 권인숙  
박상혁 의원(22인)

**제안이유 및 주요내용**

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는 반면,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만이 할 수 있음.

하지만 출생신고의무자가 모로 한정되어 있어 모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의 가능성이 있고, 과학기술 발달로 부 또한 친생자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현실을 반영하여 출생신고의무자에 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모의 인적사항 중 일부를 알고 있는 경우 법원에서 제57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경우들이 발생했었으나,

최근 대법원에서는 현행법을 폭넓게 해석하여 모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등록기준지 중 일부를 알 수 없거나, 모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혼외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해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.

이에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모의 성명, 등록기준지,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비혼부의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도록 함.

한편 현행법은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,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방지하고 사용 목적 외 사용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46조, 안 제57조제2항 및 안 제122조).

##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1항 중 “혼인 중 출생자의”를 “출생자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”를 “제1항에 따라 부 또는 모가”로 한다.

제57조제2항 중 “성명·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”을 “성명,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번호를”로 한다.

제1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2조(과태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
2.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세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6조(신고의무자) ① <u>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모는 모가 하여야 한다.</u> ② <u>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.</u> ③ <u>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</u>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. 1. 2. (생략) ④ (생략)	제46조(신고의무자) ① <u>출생자의-</u> ----- -----. <u>&lt;삭 제&gt;</u>  ③ <u>제1항에 따라 부모는 모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57조(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) ① (생략) ② <u>모의 성명·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</u>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. ③ ~ ⑤ (생략)	제57조(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성명,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번호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22조(과태료)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	제122조(과태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

<u>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u>	<u>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u> 1. <u>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</u> 2. <u>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세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</u>
--	---